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7. 12. 22.(금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당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고성우, 주무관 김관호 • ☎ (044) 201-4215, 4216
보 도 일 시		2017년 12월 23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2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, 더욱 넓어진다.

- 신북방정책, 항공 분야에서 먼저 한발짝 내딛어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그간 러시아와의 항공협정에 따라 취항이 제한되었던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이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.
- 기존에는 양국 항공협정에 따라 노선별로 항공사 수가 양국 각각 1개로 제한되어, 인천-하바롭스크 노선을 아시아나(주3회)와 오로라항공(주5회)만 운항하고 있었다.
- 최근 러시아 항공당국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우리측에 통지하였다.
-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'신동방정책(New East Asia Policy)'의 핵심지역이다.
- 러시아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* 중 하나로 운송·물류·철강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.
- *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경제·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, 세제 혜택, 행정 지원 등을 법으로 보장한 구역

- 지난 9.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*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'신북방정책' 비전을 발표하며,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 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,

* 러시아 정부가 동러시아 지역 개발 투자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포럼으로 '15년부터 올해로 3회째 개최

- 불과 3개월만에 우리나라 '신북방정책'과 러시아 '신동방정책'의 지리적 접점인 러시아 극동지역 하바롭스크에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·물적 교류가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.

- 지난 2012년 러시아는 극동지역과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톡공항 항공자유화(open sky)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, 이후 5년간('12~'16) 여객 수송이 연평균 12.1% 증가하여 16년 수송 실적이 22만1천여명에 달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크게 증진된 바 있다.

* 인천-블라디보스톡 수송통계 : ('12) 140,453명 → ('16) 221,912명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블라디보스톡 항공자유화 사례를 감안할 때, 이번 조치로 인해 러시아 극동지방과 우리나라의 인적·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, 더 나아가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고성우 사무관 (☎ 044-201-42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